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방안

2002. 7

KOTRA  
아시아·대양주 지역본부

---

---

# 목 차

---

---

I. 아프가니스탄 복구사업 추진 환경 .....	1
1.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2. 분야별 복구사업의 자금 수요 전망	
3. 복구사업 계획의 진전 현황	
II. 인도 및 파키스탄의 지원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	10
1. 인도의 지원 현황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2. 파키스탄의 지원 현황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III. 우리나라 기업의 복구사업 참여 방안 .....	17

# I. 아프가니스탄 복구사업의 추진 환경

## 1.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 20여년에 걸친 혼란 및 지난 해 내전으로 아프간은 기존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현황 파악도 매우 제한적인 것임. 대부분 외부의 지원에 따라 국가 시스템의 정비 및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UNDP가 과거 아프간의 예산 자료와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자금지원 약속을 기초로 작성한 아프간 경제의 현황 과 향후의 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음

<아프간 경제의 거시지표 추정>

항목 / 향후 기간	1년	1-2.5년	2.5-5년	5-10년
인구 (백만명, 기간평균)	25	26	28	31
GDP (연평균 증가율, %)	15%	15%	10%	7%
GDP (연간총액, 십억불)	5	5.9	7.6	10.1
GDP (기간 총액, 십억불)	5	8.8	19	50.5
1인당GDP (연평균증가율,%)	12%	12%	7%	4%
1인당 GDP(US\$)	200	226	271	326
정부고용(국방제외 모든 기능)	225,000	220,000	250,000	275,000
국방고용 (매년 경상비용, 백만불)	118	118	118	118
연평균 임금 (US\$/년)	1,200	1,250	1,350	1,650

\* 자료원 : Gov't of India-UNDP Joint Conference

- 아프간 복구계획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우선 Bonn 협정의 이행 계획서에 따라 현재의 과도 체제는 향후 2년반이 지나면 종료되고 정식 정부가 구성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2년간은 정식 정부의 주도하에 주요 국가정책을 수립 및 국가 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아프간 경제는 인구 25백만명, GDP 5십억불, 1인당 GDP 200불, 평균임금은 연간 1,200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되고 있음. UNDP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각국의 지원으로 복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아프간의 GDP성장율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15%, 5-10년간 연평균 7% 성장하여 5년이후 아프간의 GDP는 현재의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 분야별 복구사업의 자금수요 전망

### 가. 복구사업의 수요 평가

- UNDP가 아프간 복구지원 자금을 추정한 방식은 다음의 두가지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첫째, 분쟁이 발생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간과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 지원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약 40-80불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아프간의 인구를 곱하여 총 지원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이 경우 현재 아프간의 인구가 2,500만명임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지원규모는 최저 100억불에서 최고 200억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둘째, 현재 상태에서 아프간의 복구 비용을 각 부분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각 부문별 복구를 위한 투자비용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합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에 의해 추정된 지원 규모는 최고, 최저 범위에 따라 상이하나, 기준 소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 기간별로 각각 향후 1년간 17억불, 2.5년간 49억불, 5년간 102억불, 10년간 146억불로 추정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 전후복구를 위한 기간별 소요 자금 추정>

(단위 : 백만불)

시나리오	1년간	2.5년간	5년간	10년간
기준 소요액	1,700	4,900	10,200	14,600
최저 소요액	1,400	4,200	8,300	11,400
최고 소요액	2,100	6,500	12,200	18,100

\* 자료원 : UNDP, 대상 기간(년)의 누적 금액기준임

- 한편 아프간 전후 복구를 위한 동경회의에서 결정된 각국의 자금지원 총 48억불(각국의 지원약속 기준)은 향후 2.5년간의 기준 소요액에 근접하는 규모로서, 각 기간별/부문별 소요액의 추정 내역(기준 소요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 향후 10년간 아프간 복구사업의 소요액을 부문별로 보면, 가장 많은 투입이 필요한 부문은 인프라 부문으로 총 복구비용의 4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육, 보건 및 사회분야가 21%, 통치 및 경제 운용 14%, 신변 안전 12%, 농업 및 자연자원 관리 12%로 구성되어 있음  
(10년간 누계액 115억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기간중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용 31억은 제외한 금액임)
  - 향후 10년간 총 48억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프라부문에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운송부문이 23.9억불로 전체 인프라 부문의 약 50%에 달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가 13.3억불, 그 밖에 용수 및 위생 5.8억불, 통신 1.2억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도로등 운송분야는 향후 2.5년간 투입 비용이 1.8억불에 그치는 반면, 5년간 10.3억불(누계 기준), 10년간 23.9억불 투입되어 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신변안전 분야와 통치 및 경제운용 분야의 비용은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5년 이후 10년간의 투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초기단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 전후복구를 위한 분야별/기간별 필요금액(지원약속 기준)>

(단위 : 백만불)

분야 / 기간	1년간	2.5년간	5년간	10년간
<b>안전</b>				
안전요원 및 경찰	180	320	320	320
지뢰 제거	60	150	450	660
약물(poppy) 통제	30	110	290	380
<b>소 계</b>	<b>270</b>	<b>570</b>	<b>1,060</b>	<b>1,360</b>
<b>행정 및 경제 운영</b>				
통치 및 행정관리	140	330	500	520
지방정부/지역사회 개발	70	300	600	800
민간부문 개발	20	110	200	200
여성 활동	10	10	20	40
환경	10	20	30	30
문화 유산	10	20	30	30
<b>소 계</b>	<b>260</b>	<b>780</b>	<b>1,370</b>	<b>1,620</b>
<b>사회 보호, 건강 및 교육</b>				
교육	80	210	650	1,240
건강	50	210	380	640
사회적 보호	130	350	400	490
<b>소 계</b>	<b>260</b>	<b>760</b>	<b>1,430</b>	<b>2,380</b>
<b>인프라스트럭처</b>				
운송	50	180	1,030	2,390
민간항공	10	30	60	70
용수 및 위생	30	100	230	580
에너지	40	240	760	1,330
통신	10	40	80	120
도시관리, 서비스, 주택	30	130	250	320
<b>소 계</b>	<b>170</b>	<b>720</b>	<b>2,400</b>	<b>4,810</b>
<b>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b>	70	280	850	1,360
<b>총 개발 비용</b>	<b>1,000</b>	<b>3,110</b>	<b>7,110</b>	<b>11,530</b>

- 한편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비용(민간부문의 자금수요는 제외)은 교육, 보건, 방위 등 정부 기능과 관련한 고정비용으로 최초 2.5년간은 정부의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2.5-5년간 기간중에는 정식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입 기반을 강화하게 되어 세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5년이후부터는 재정세입이 연평균 10억불 정도로 GDP의 10%에 이르게 되어 매년 발생하는 경상비용은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매년 반복 경상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액(백만불)>

항목 / 향후 기간	1년	1-2.5년 (과도기)	2.5-5년 (통합기)	5-10년 (정상기)
재정 수입	0	0	600	5,000
매년 경상비용				
급여 (국방제외 모든 정부기능)	270	410	840	2,270
정부 서비스 비용 (국방 제외)	80	120	250	680
유지관리(국방제외 모든 정부기능)	230	350	550	1,470
국방관련 급여 및 유지관리	120	180	300	580
이전 지출	N/A	N/A	N/A	N/A
이자	N/A	N/A	N/A	N/A
총 경상비용	700	1,070	1,940	5,000
GDP대비 구성비(%)	14%	12%	10%	10%
총 경상비용 (누적)	700	1,770	3,710	10
경상비용에 대한 총 원조 필요액 (기간별)	700	1,070	1,340	0
총 원조 필요액 (누적)	700	1,770	3,110	3,110

\* 금액은 기간중 누적 기준임

## 나. 복구사업에 대한 주요 분야별 수요 내역

- 위에서 언급한 각 부문별 복구사업 수요를 기초로 향후 자금 수요가 큰 부문들을 중심으로 소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요 부문별 복구 소요 내역 : 향후 10년간 지원 기준>

- 도로건설: 1994 Afganistan Road Survey를 기초로 추정
  - 총 2,500km 간선도로 네트워크(Maimana-Shiberghan-Mazaresharif-Pulekhumri-Salang-Kabil) 재건 및 업그레이드 (10-10.5억불)
  - Herat-Shiberghan 구간(두절구간) 및 Herat-Pule Matak 구간 도로 건설 (4억불)
  - 3,000km의 2차선 보완, 5,000km의 1차선 연결 공사 (7억불)
  - 농촌지역 접근 도로 공사 (2억불)
- 에너지 : 10년간의 자본투자 및 기술 지원
  - 전력 공급 능력을 전쟁전의 2배인 90MW로 증강 (10억불)
  - 석유부문 (0.9억불)
  - 천연가스 부문 (1.50억불)
  - 석탄 부문 (0.4억불)
  - NRER(New & Renewable Energy) 부문 (0.5억불)
- 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
  - 종자 생산 및 유통체계 (5억불)
  - 관개시설의 복구 및 개발 (3억불)
  - 삼림 및 천연자원 관리 (3억불)
  - 기술 원조 및 지도 계획 (3억불)
- 지뢰제거 : UN의 Mine Action Programme의 지속 및 확대
  - 지뢰 제거를 위한 소요액은 향후 7년간 총 660백만불 소요 추정
  - 단기간내 완성할 경우 3년간 900백만불 소요

- 용수 공급 및 위생, 주거시설
  - 27개 도시에 대한 용수 공급설비의 확장 (2억불)
  - 농촌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2.3억불)
  - 15만호의 이주민 수용시설 설치, 15만호의 기존시설 개선 (1.3억불)
  - 도시도로 보수 및 하수도(250km) 시설 정비 (1억불)
  
- 교육 : 초등교육(6억불), 중등교육 (3억불), 고등교육(2억불) 등
  
- 치안 유지
  - 60,000명의 안전요원들에 대한 기초장비 보급 (2.2억불)
  - 30,000명의 경찰 인력에 대한 장비 보급 (1억불)
  
- 보건시설
  - 병원시설 복구 (3.8억불)
  - 보건 센터 및 여성클리닉 복구 (1.2억불)
  - 의료기관 개발 및 의료관리 (1.4억불)
  
- 통치 및 행정관리
  - 정부 및 지방정부 건물 건축 (1억불)
  - 기술지원 및 관련 기관 개발 (1억불)
  
- 통신분야 :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되, 지원금은 민간의 자생력이 취약한 부문에만 지원
  - 기존 통신시설의 복구 (1.1억불), 기술 지원 등
  
- 약물 통제 : 세계적 아편 산지인 아프간에서의 약물 사용 퇴치를 위해 10년간 3.8억불 지원
  - Kabul에 '약물통제위원회' 설치 및 주요 지역에 약물통제소 설치
  - 불법적인 아편 재배 감시 등

### 3. 복구사업의 진전 현황

- 아프간 과도정부가 향후 2년간 전후 복구를 위해 주요 산업 분야별로 투입되어야 할 자본투자액 및 기술원조액, 그리고 현재까지의 자본조달 현황을 담은 복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동 계획서에서 항목별 투입액은 ADB, UNDP,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평가 및 최근 전후복구를 위한 공동지원단(joint donar mission)의 평가에 따른 것으로, 재무분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등에 따라 향후 보완·수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상태에서 향후 2년간 자금투입이 가장 많은 부문은 농촌 지역개발(6.1억불), 도로(4.5억불), 사회보호(3.5억불), 행정/통치(3.3억불), 관개 시설을 포함한 농업분야(2.8억불) 등이며, 현재까지 자본조달이 비교적 원활한 부문은 교육, 지역개발, 도시지역 용수 및 위생분야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뢰 제거, 약물 통제, 환경 등의 분야는 향후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도로, 보건, 농업 분야등은 상당한 추가조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 및 통치, 도시서비스, 문화유산 보존등의 분야는 잡조달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각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부문별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UNDP관계자에 의하면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어야 각 부문별 복구 공사의 규모, 시행시기 등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향후 수개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

<향후 2년간 복구사업 및 Funding 현황 : 아프간 과도정부 작성>

(단위 : 천불)

부문/프로그램	필요금액	조달현황	추가필요	비 고
교육	150,000	125,220	24,780	상대적으로 원활한 조달
건강	235,500	33,340	202,160	상당한 추가조달 필요
지역개발(농촌 지역 인프라 개발 포함)	610,000	325,000	285,000	정부지원계획 필요성이 매우 높고, NGO 역할이 중요하나 지원에 한계
도시지역 용수 및 위생	53,000	35,470	17,530	상대적으로 원활한 조달
에너지 / 통신	130,600	21,100	109,500	단기적 수요 충족 가능, 중기적으로 상당한 갭
도로	453,700	300,950	152,750	상당한 추가조달 필요
민간항공	256,833	N/A	N/A	상당한 추가조달 필요, 관심도가 매우 제한적
안전요원 및 군 동원 해제	320,000	N/A	N/A	상당한 추가조달 필요, 관심도가 매우 제한적
행정력강화(*)	330,000	N/A	N/A	불투명
지뢰 제거(*)	150,000	N/A	N/A	상대적으로 원활 예상
사회 보호(*)	350,000	N/A	N/A	부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기대
농업 (관개 포함)(*)	280,000	N/A	N/A	상당한 추가조달 필요, 특히 관개시설 필요성 높으나 관심도 저조
도시서비스(*)	130,000	N/A	N/A	불투명
약물 통제(*)	110,000	N/A	N/A	상대적으로 원활 예상
민간 개발(*)	110,000	N/A	N/A	불투명
여성 활동(*)	10,000	N/A	N/A	상대적으로 원활 예상
환경(*)	20,000	N/A	N/A	상대적으로 원활 예상
문화 유산(*)	20,000	N/A	N/A	불투명
계	3,719,633	841,080		

주 : \* 별표 항목은 ADB/UNDP/World Bank등의 평가에 기초한 것이며, 나머지  
항목은 공동지원단(joint donar mission)의 평가에 따른 것임

## II. 인도 및 파키스탄의 지원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 1. 인도의 지원현황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 가. 지원 현황

- 아프간의 현 과도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도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다방면의 지원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 1월 아프간 재건을 위한 동경회의에서 금년내 1억불의 자금을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추가로 11.5백만불의 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약속함
- 인도정부는 지난해말 18톤의 의약품과 20명의 의료진을 카블에 파견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의료진 파견 및 의약품을 지원하고, 금년 2월에는 아프간 외교관 20명을 인도에서 3개월간 교육한데 이어, 50대의 민간수송 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인도는 최근 교육, 위생, 수송, IT, 에너지, 교육훈련 등 다방면에 걸쳐 아프간 과도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 : 6개의 학교, 기술전문학교, 교육자재 지원등 교육인프라 지원
  - 의료 : 6개의 메디컬센터, 이동의료시설 및 기존 의료시설의 복구
  - 산업 : 카블내 기존 산업단지의 재건 및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의 건설
  - 정보기술 : 카블에 컴퓨터 교육 및 메인터넌스 시설 설치, 각 아프간 정부부처에 대한 컴퓨터 하드 및 소프트웨어 지원
  - 대중운송 : 50대의 버스 지원 및 여타 차량 지원
  - 에 너 지 : 용수 및 발전관련 다양한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아프 농촌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검토
  - 교육훈련 : 아프간 정부부처의 각 부문별 청사 건립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인도내 관련기관에 위임

- 이러한 인도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노력은 아프간 현정부와 인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아프간 복구사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도정부/기업들의 사업참여와 영향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임
- 또한 인도정부는 이러한 협력 사업들의 구체화를 위해 의약연구소, 보건부, 정보방송부 등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아프간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분야들을 확인한 있으며, 아프간 정부부처의 전산화관련 아프간 외무부에 대한 인터넷 연결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나. 아프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인도의 노력

- 인도 정부의 아프간 지원활동을 배경으로 CII(인도경제인연합회, 인도전경련), ASSOCHAM(상공회의소), FICCI(상공회의소 연합) 등 인도의 각 경제단체들도 아프간 복구사업 참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CII는 금년 2월 경제사절단을 카블에 파견한데 이어, 3월에는 카블에 CII사무소를 개설하여 구체적인 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발굴을 진행하고 있음. 동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CII 직원 Mr.Lakshman 에 따르면, 인도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접국으로부터 아프간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파키스탄, 중국 및 이란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현재 아프간에서 가장 유망한 제품들의 사례로는 발전기, 급수 펌프, 곡물 분쇄기, 직물, 세라믹 타일, 자동차용 배터리, 수공구, 세탁기, 냉장고, 천정팬, 산업용페인트, 자건거, 컴퓨터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부문별 유망 제품들의 아프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CII는 금년 9월 카블에서 “인도상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프간주재 CII사무소는 아프간 산업부의 지원으로 시멘트, 의류, 방직, 식품가공등의 분야에서 6개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조만간 인도 관련기업들이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ASSOCHAM(인도 상의)는 상의내에 설치한 ‘아프간 복구사업 태스크포스’ 대표 등 주요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파견하고, 복구사업관련 우선적인 유망 분야로 i)시멘트 공장, 수력/화력 발전소의 개선, ii)도로, 교량, 고속도로 등 대형 건설 공사, iii)국제기구등의 인사들을 수용하기 위한 200실 규모의 호텔 건설, iv)임시 거주시설의 설치등을 제시하였음
- FICCI(인도상공회의소연합)은 인도의 공기업과 주요 민간기업의 참여하에 ADB, World Bank, UNDP 등 국제기구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간 복구관련 인도 산업계의 프로포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와함께 아프간 정부의 재건정책과 관련 아프간정부와 인도 관련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음
- 한편 FICCI는 향후 아프간 복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인도기업 76개사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들 기업들의 아프간 복구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다. 아프간 복구를 위한 남남협력회의 개최

##### 1) 회의 개요

- 명 칭 : India-UNDP Joint Conference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Reconstruction of Afghanistan
- 일 시 : 2002.5.23-24일 (2일간)
- 장 소 : 뉴델리 Taj Palace 호텔
- 주 최 : 인도정부 및 UNDP 공동 주최
- 참석자 : 47개국가 및 국제기구(UNDP), NGO 대표 등 약 150명
  - 우리측 참석자 : 주인도 한국대사관 전남진참사관, KOTRA무역관장
- 회의진행
  - 23일 : 개회식, 전체회의, 개도국기업의 역할, 국별 실무회의
  - 24일 : 전체회의, 의장 회의결과 요약 발표

\* 기조연설은 인도대표(Jaswant Singh외무장관), UNDP대표(Malloch Brown, UNDP Administrator), 아프가니스탄 대표(Hedayat Amin Arsala 재무장관) 등 3명이 연설

○ 주요 협의내용

- 아프간 임시정부의 정치 사회적 안정 및 재건계획 설명(아프간 임시 정부 재무장관 및 교육부장관 발표)
- 아프간 재건을 위한 아프간-선진국-개도국 3자간 협력방안 논의
- 전후복구관련 각국의 관심 분야 등

2) 회의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사항

- UNDP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동경회의에서 확인된 45억불의 아프간 지원약속 자금중 25%는 개도국으로부터 출연되었다는 점에서, 개도국 으로부터 아프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함
- UNDP 자문관(.G. Abraham)은 아프가니스탄 재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부문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원천임을 강조한데 대해, 향후 아프간 상공회의소와 회의 참가국 상공회의소간 협력을 위한 Forum 개최를 제안함
-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인도는 기업소개 일정에서 아프간 재건사업 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도기업 4개사 (Tata 그룹의 PCP International Ltd., Larsen & Toubro Ltd., UP Bridge Corporation Ltd., BHEL)를 소개하여, 이들 기업의 대표들이 도로, 전력, 주택, 통신, 교량 등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함
- 특히 이번 회의 기간중 각 참가국들은 배포자료를 통해 아프간 전후복 구를 위한 재원 마련등의 추진현황과 함께,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국기업의 리스트를 배포함으로써 복구사업에의 참여기회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음(EU,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한편 전체회의에서 파악된 각 국별 관심사항 및 지원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 세금징수, 농업관개용수 개발, 동물 사육
- 이 란 : 초등/중등 과정의 교육개발정책
- 터 키 : 의사, 간호사 및 엔지니어의 무상 파견
- 베 트 남 : 아프간 군대의 훈련
- UNDP : 농촌지역의 개발, 소녀들의 교육
- ADB : 금년내 2억불 규모의 도로건설, 교육, 보건분야의 재난 관리 프로그램 실시
- 네델란드 : 난민 귀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 이 태 리 : 아프간의 지역적 균형개발과 민간부문의 중요성 언급
- 모 로 코 : 농촌개발, 지하자원 개발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의사 표명
- W. F. P : 식량 안보를 위한 남남협력의 중요성 언급
- 방글라데시 : 농업, 인프라, 보건, 교육, 빈곤퇴치에 대한 대처능력을 형성하는데 지원 용의 표명
- 인도, 터키,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 전쟁 미망인들에 대한 직업훈련

### 3) 전후 복구사업관련 각국 대표단의 관심사항

- 한국, 루마니아 등
  - 민간부문이 관심을 갖고 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건사업의 대상 및 규모, 시행시기, 조건, 접촉 대상, 출입국 절차 등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UNDP 대표 (D.E. Lockwood)
  -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재원이 확정되면 복구 공사의 규모, 시행시기 등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향후 수개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
- 인 도
  - 아프간내의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아프간의 은행, 상공회의소 직원등을 소규모 대표단 형태로 인도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함

#### 4) 한국과의 협력 요청사항

- UNDP 개도국 기술담당부과장(Yiping Zhou)는 우리측 대표에게 아프간 복구관련 Road Show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측이 방한 경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함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아프간 재건공사, 특히 건설분야와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사들로 대표단이 구성될 경우 방한 경비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베트남 대표단(T.S. Thanh 외교부 아시아Ⅱ 부과장, N.M. Tuan 주인도 베트남대사관 경제담당서기관)은 우리 건설업계가 아프간 재건공사에 참여할 경우 저렴한 양질의 베트남 노동력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 관련업계의 베트남의 의견을 적절히 전달하겠다고 응답함

## 2. 파키스탄의 지원현황 및 복구사업 참여 계획

### 가. 지원 현황

- 파키스탄은 오랜 전쟁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2백만에 달하는 아프간난민을 안전하게 송환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는 아프간에 국제사회의 원조물자가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파키스탄 항구 및 육로를 개방하였음
- 또한, 기존 Afghan Transit Trade Agreement(아프간물품운송협약)에 명시된 품목 외에 생활물자 등을 추가하여 무관세 운송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식량 및 복구물자 지원을 확대 지원하였음
-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이 종료된 2001. 12월 이후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아프간 전후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계획을 아프간 정부와 협의

일 자	파키스탄의 지원 및 양국간 협의 내용
'01.12.13	전력, 수도청, 건설청 소속 기술자, 아프간 전후복구조사단 파견
'01.12.13	대 아프간 14개 교역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조치
'02. 1.13	루피화로 아프간 교역 허용
'02. 1.13	아프간 전후복구기금 1억불 기증
'02. 2.13	민관합동 아프간 전후복구 Task Force팀 가동
'02. 3. 9	무샤라프 대통령 아프간 국민방문, 카르자이 수상과 정상회담
'02. 3.14	토르خم-카불간 고속도로, 칸다하르 도심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양국위원회 구성
'02. 3.21	○ 외교관계 재개, 대사관, 영사관 개소 및 업무개시 - 파키스탄 : 카불에 대사관, 잘랄라바드에 총영사관 개소 - 아프간 : 이슬라마바드에 대사관, 페샤와르에 총영사관 개소
'02. 4. 8	상공회의소 아프간 재건프로젝트에 참가한다는 내부원칙 마련
'02. 4. 8	수출촉진청, 아프간 건설비용 5천만불 기금 대 정부지원 요청
'02. 4.16	이슬라마바드-카불간 항공운항 재개
'02. 5.13	투르크메니스탄-파키스탄간 850km 송유관 공사 합의 - 파키스탄에 연간 300억㎥ 가스 송유 가능

#### 나. 파키스탄 정부의 대 아프간 지원 계획의 한계

- 1998년 이후 IMF에 의한 경제운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은 정부 재정 사정으로 인해 대 아프간 지원 사업에 있어 금전적, 물적 지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카슈미르분쟁으로 인도와 전쟁 직전에 있는 정국 상황도 아프간 지원에 정책우선권을 둘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무샤라프 정부가 10월 민정이양을 위한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 국민 선무작업을 위한 내치가 급하다는 점에서도 아프간 지원정책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Ⅲ. 우리나라 기업의 복구사업 참여 방안

- 아프간 복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 및 파키스탄과 공동진출을 모색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인도 및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현 과도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복구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실제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실제로 파키스탄 철강, 건설업체들은 이미 아프간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사업 추진 여건조사를 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아프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아프간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기업들과 공동진출을 통한 사업추진은 정보입수 및 프로젝트 수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양국 경제단체 및 기업들은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축소 및 노하우 활용을 위해 해외건설 등 플랜트 수행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과의 공동진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공동진출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인도 공동진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ASSOCHAM(인도상의의)의 ‘아프간재건사업 태스크포스’ 의장 Mr.Ravi Wig을 면담한 결과, 한-인도 기업의 아프간 공동진출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특히 다음과 같은 건설 분야를 유망 분야로 제시하였음
  - 1)발전 분야, 2)도로 및 교량 건설, 3)병원 건설, 4)빌딩 및 도시건설 공사, 5)시멘트 공장건설, 6)관개시설, 7)건설장비 공급(한국), 8)프로젝트 관련 기계설비류의 공급(한국), 9)농업용 설비류

- 또한 아프간의 기후여건이 북인도 지역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들이 인도와 공동진출할 경우, 저임금의 인도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하지만, 이와 같은 인도와 파키스탄 기업의 아프간 진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모색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 이는 아프간 과도정부가 최고 종족회의인 로야 지르가를 통해 현 카르자이 수반을 재선임하여 2002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권력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동경포럼에서 아프간전후복구를 위해 각국의 지원 총금액이 48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금의 투입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임
- 그러나 아프간 전후복구 사업이 적게는 100억불에서 많게는 200억불로 추산되어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 기업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한 지역연구와 전후복구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동 시장 진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